

래일은없다、

(어린마음의물은— —)

래일래일 하기에

물었더니、

밤을자고 동틀때

래일이라고、

×

새날을 찬은나는

잠을자고 돌보니、

그때는 내일이아니라、

오늘이더라、

×

무리여!

래일은 없나니

.....

昭和九年十二月二四日

내일은 없다

—어린 마음에 물은—

내일내일 하기에

물었더니

밤을 자고 동틀 때

내일이라고、

×

새날을 찾던 나는

잠을 자고 돌보니

그때는 내일이 아니라

오늘이더라、

×

무리여!

내일은 없나니

.....

1934. 12. 24.